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가 대인관계조화에 미치는 영향

양윤서¹, 홍소형^{2*}, 류정림³

¹한일장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³군산간호대학교 조교수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Nunchi on Interpersonal Harmony in Nursing Students

Yoon-Suh Yang¹, So-Hyoung Hong^{2*}, Jeong-Lim Ryu³

¹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Hanil University an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²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Donggang National University

³Assistant Professor, Kunsan College of Nursing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가 대인관계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전라북도 소재의 B, H, H, J, K 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 간호대학생 178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로 시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였으며 눈치 파악,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도 순으로 대인관계 조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전체변수의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조화에 대한 설명력은 55%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능력, 눈치 수준,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조화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의사소통 능력, 눈치 파악, 눈치 행동, 대인관계조화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nunchi on their interpersonal harmony. One-hundred and seventy-eight third- and fourth-year nursing students attending one of B, H, H, J, K universities in the North Jeolla Province were surveyed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regression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 21.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communication competence had the greatest impact on interpersonal harmony, followed by nunchi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with these variables explaining for 55% of interpersonal harmony. Hence, strategies that improve communication competence, nunchi,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would be helpful for increasing interpersonal harmony.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Nunchi Understanding, Nunchi Behavior, Interpersonal Harmony

*Corresponding Author : So-Hyoung Hong(hsh-so@hanmail.net)

Received June 1, 2020

Revised June 30, 2020

Accepted July 20, 2020

Published July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인간의 성장 시기 중 후기 청소년에서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시기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건전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친다. 원만한 대인관계에서 오는 소속감과 안정은 자아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1],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면 공허함과 고립감 등의 심리적 혼란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2]. 대인관계는 타인과의 지속인 상호작용을 의미하지만, 대인관계조화는 타인과의 상황에서 개인의 정서, 인지, 행동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조화로운 상태이며[3]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4].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뿐만 아니라 졸업 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많은 대상자들과 원만하고 유익한 대인관계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5]. 하지만 대다수의 간호대학생은 많은 조별과제 활동, 임상실습 시 여러 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으로 대인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에 대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6].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과 스트레스의 원인은 위계적 간호조직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인관계 갈등, 선배들에게 태움, 억눌림, 비난, 굴욕 등이 있었다[7]. 그 결과, 신규간호사의 70%가 이직 의도가 있으며 실제 33.6% 이직을 했다[8]. 이직의 주요 원인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대인관계 갈등이라는 사실은[9] 간호대학생을 위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대상자와 관계유지의 뿐 아니라 조직에 적응하고 간호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에 만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10]. 경제 발전과 교육 수준의 향상에 따라 대상자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고[11]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12]. 또한, 단순한 의사소통의 차원을 넘어 자신의 상황이나 대상자, 선배 간호사에게 주의를 기울여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에서 비언어적 표현 방식을 선호할 때에는 표정으로 드러난 의미보다 상대방이 표현하는 이면의 의

미와 감정을 알아내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가장 걸맞은 행동을 하는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13] 집단주의 특성이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이 기능을 눈치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14].

눈치는 개인의 내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표현되는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는 대인 관계적인 과정이자 양상이다[15]. 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눈치는 파악 요인과 행동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악 요인은 마음 읽기와 인지 공감과 유사하지만 일대일 상황과 여러 명과의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행동 요인은 사회기술과 비슷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상황이나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 눈치 행동을 보일 수 있고 또한, 상대가 아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눈치 행동을 할 수 있다[14]. 따라서 눈치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우리나라 인간관계의 특성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대인관계 양식이고 자신을 보호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한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16]. 이러한 눈치의 특성은 간호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예민한 감정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는 대상자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하고 반응하기 위해 눈치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눈치는 다른 사람과 모든 상황에서 활용함으로써 서로 균형을 이루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14].

대인관계조화에 관한 선행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조화와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17], 대인관계조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18], 대인관계조화 척도 개발 연구[3,19]가 있다. 그러나 대인관계조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탐색에 관한 연구[20]가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조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사소통 능력, 눈치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대인관계조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조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가 대인관계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 대인관계조화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조화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 대인관계조화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 및 대인관계조화 정도를 파악하고 대인관계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가 편의 추출한 G시와 J시 소재한 5개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프로그램으로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유의한 변수로 검증된 10개의 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118명으로 산출되었다. 설문지 배부 결과 총 178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8문항,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15문항, 눈치에 관한 12문항, 대인관계조화에 관한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게 표현하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말한다[21]. 본 연구에서는 Rubin[21]의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ICC)의 의사소통 능력 구성개념에 Hur[22]가 수정한 Global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GICC)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ur[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7이었다.

2.3.2 눈치

눈치는 상대방의 생각, 느낌, 기분이나 처한 상황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23].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과 상황을 파악하는 파악 요인과 상대방과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행동 요인으로 구성된 Heo와 Park[23]이 개발한 눈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눈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eo와 Park[2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다.

2.3.3 대인관계조화

대인관계조화는 개인이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개인의 정서, 인지, 행동이 조화를 이루어 통합적으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Kim과 Park[3]가 개발한 대인관계조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조화 정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Kim과 Park[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89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학생들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자료수집 전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IRB No. 201511-SB-001-01).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와 수집된 모든 자료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한 정보,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제공한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회수된 설문지 중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10부를 제외하고 178부를 분석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 및 대인관계조화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조화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확인하였고 Scheffé를 이용하여 사후 검증을 하였다.
-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 및 대인관계조화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대인관계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 178명 중 24세 이하가 165명(92.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91명(51.1%)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102명(57.3%)이 현재 가족과 같이 동거하고 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 좋음'이 121명(68.0%)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취업이 잘 되어서'가 71명(39.9)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신념' 63명(35.4%)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112명(62.9%),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109명(61.2%)이었고 지난 학기 학업 성적이 4.5점 만점에 3.4~3.0점이 68명(38.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 Table 1과 같다.

3.2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 및 대인관계조화 정도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6±0.44점으로 나타났다. 눈치는 5점 만점에 3.86±0.46점이었고, 눈치의 하위영역의 평균은 눈치 파악 3.82±0.56점, 눈치 행동 3.90±0.49점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조화는 5점 만점에 평균 3.88±0.39점이었다.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	≤24	165(92.7)
	25≥	13(7.3)
Gender	Male	91(51.1)
	Female	87(48.9)
Religion	Yes	91(51.1)
	No	87(48.9)
Living together	Yes	102(57.3)
	No	76(42.7)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21(68.0)
	Moderate	53(29.8)
	Poor	4(2.2)
Motivation for choosing nursing	Work well	71(39.9)
	Recommendation by others	44(24.7)
	Personal belief	63(35.4)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Good	45(25.8)
	Moderate	112(62.9)
	Poor	20(11.2)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Good	61(34.3)
	Moderate	109(61.2)
	Poor	8(4.5)
Grade point average	≥4.0	24(13.5)
	3.5~3.9	62(34.8)
	3.0~3.4	68(38.2)
	<3.0	24(13.5)

Table 2. Degre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unchi, and Interpersonal Harmony (N=178)

Variable	Mean±SD	Reference range
Communication competence	3.76±0.44	1~5
Nunchi	3.86±0.46	1~5
Nunchi under standing	3.82±0.56	1~5
Nunchi behavior	3.90±0.49	1~5
Interpersonal harmony	3.88±0.39	1~5

3.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조화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조화는 Table 3과 같이 동거($t=-2.22, p=.028$), 주관적 건강상태($t=5.62, p=.004$), 간호학과 지원동기($t=5.03, p=.008$), 대학생활 만족도($t=6.81, p=.001$),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t=7.3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혼자 생활하고 있는 학생이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학생보다 대인관계조화 점수가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 좋음'과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군이 '나쁜' 군보다 대인관계조화 점수가 높았다. '개인의 신념'에 따라 학과를 지원한 군이 '취업이 잘 되어서' 지원한 군보다 대인관계조화 점수가 높았고 대학생활 만족

도가 '좋음' 군이 '보통' 과 '나쁨' 보다 대인관계조화 점수가 높았다. 전공만족도가 '좋음' 군이 '보통'과 '나쁨' 군 보다 대인관계조화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of Interpersonal Harmony (N=178)

Characteristics	Categories	Interpersonal harmony	
		Mean±SD	t/F (p)
Age	≤24	3.88±.38	.23 (.814)
	25≥	3.85±.44	
Gender	Male	3.87±.38	-.81 (.415)
	Female	3.95±.46	
Religion	Yes	3.89±.40	.34 (.732)
	No	3.87±.37	
Living together	Yes	3.82±.39	-2.22 (.028)
	No	3.95±.38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a	3.93±.39	5.62 (.004) a,b)c
	Moderate ^b	3.80±.35	
	Poor ^c	3.36±.39	
Motivation for choosing nursing	Work well ^a	3.79±.38	5.03 (.008) a)c
	Recommendation by others ^b	3.84±.39	
	Personal belief ^c	4.00±.36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Good ^a	4.04±.39	6.81 (.001) a)b,c
	Moderate ^b	3.83±.37	
	Poor ^c	3.73±.33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Good ^a	4.02±.37	7.39 (.001) a)b,c
	Moderate ^b	3.81±.37	
	Poor ^c	3.66±.42	
Grade point average	≥4.0	4.05±.40	2.32 (.076)
	3.5-3.9	3.85±.37	
	3.0-3.4	3.82±.40	
	<3.0	3.93±.32	

3.4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 및 대인관계조화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 및 대인관계조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의사소통 능력은 눈치 파악($r=.53, p<.001$), 눈치 행동($r=.57, p<.001$), 대인관계조화($r=.71,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눈치 파악은 눈치 행동($r=.48, p<.001$), 대인관계조화($r=.55, p<.001$)과 유의한 상관 관계였다. 또한 눈치 행동은 대인관계조화($r=.49,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였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눈치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조화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e, Nunchi, and Interpersonal Harmony (N=178)

Variables	1	2	3	4
	r(p)			
1. Communication competence	1			
2. Nunchi understanding	.53 (<.001)	1		
3. Nunchi behavior	.57 (<.001)	.48 (<.001)	1	
4. Interpersonal harmony	.71 (<.001)	.55 (<.001)	.49 (<.001)	1

3.5 대상자의 대인관계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Table 5와 같다. 일반적인 특성 중 대인관계조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인 동기, 주관적 건강상태,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 및 대학생활 만족도와 대인관계조화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의사소통 능력과 눈치 파악, 눈치 행동 변수를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중 주관적 건강상태,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등분산 검정을 위해 잔차 도표를 확인한 결과 등분산성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공차한계는 .683 ~ .949로 0.1이상이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54~1.463로 기준값인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의사소통 능력($\beta=.58, p<.001$)이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이었으며 눈치 파악($\beta=.26, p<.001$),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도($\beta=.13, p=.013$) 순으로 대상자의 대인관계조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전체 변수의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조화에 대한 설명력은 55%로 나타났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Interpersonal Harmony (N=17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s	1.35	.18		7.66	<.001
Communication competence	.49	.05	.55	9.10	<.001
Nunchi understanding	.18	.04	.26	4.32	<.001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good ^a	.11	.04	.13	2.51	.013
Adjusted R ² =.55, F=76.00 p<.001					

^aDummy variables :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1=good, 0=poor)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 및 대인관계조화를 파악하고, 각 변수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여 대인관계조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6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3.78점[24]과 유사했고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3.58점[25],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한 연구결과 3.20점[26]보다 다소 높은 평균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이 간호사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대상자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분야 간 의사소통과 협력 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간호대학에서는 실제적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육성하기 위해 토의, 역할극, 시뮬레이션 수업 등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24]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눈치는 5점 만점에 3.86점이었고 하부 요인인 눈치 파악 3.82점, 눈치 행동 3.9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들의 눈치 파악 2.31점, 눈치 행동 1.66점[27], 일반 대학생의 눈치 파악 3.71점, 눈치 행동 2.27점보다 높았고 간호대학생의 눈치 점수 3.82점, 눈치 파악 3.78점, 눈치 행동 3.87점[28]과 유사하였다. 이는 중학생과 대학생의 연령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 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의 눈치 점수의 차이는 간호대학생은 학교에서 이론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면서 눈치 수준이 더 발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대인관계조화는 5점 만점에 평균 3.88점이었고, 이는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3,18]보다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조화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많은 임상 실습에서 간호대학생과 환자의 대인관계는 환자뿐 아니라 간호학생에게도 학습과 성장의 기회가 되어[29] 대상자들에 대한 경청과 공감 능력을 포함한 대인관계 능력이 높아졌을 것으로[30] 사료되며 추후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조화는 동거, 주관적 건강상태,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 전공

에 대한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구결과[31]와 일부 유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혼자 사는 경우 대인관계가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Kim 등[31]의 연구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학생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학생에 비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배려하고 깨닫는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43% 정도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깊은 친밀감과 신뢰감으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Yi, Kwak[32]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조화는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과 전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대인관계조화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불만족한 경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유사하다[33]. 간호대학생의 높은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일상생활 전반의 사고와 행동에 기초가 되는 개인의 성향인 대인관계조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결과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 간호학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학과를 선택한 군이 취업의 보장으로 진학한 군보다 대인관계조화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확고한 간호철학과 소명 의식 정립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결과로 해석되며 입학 시부터 진학 동기에 근거해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간호 전문직에 대한 긍지와 가치관 등을 파악하여 간호직에 대해 더욱 미래지향적이며 희망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방법과 직업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 및 대인관계조화 간의 상관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눈치 파악, 눈치 행동, 대인관계조화와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눈치 파악은 눈치 행동, 대인관계조화와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눈치 행동은 대인관계조화와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ee[28]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과 눈치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병사들의 눈치와 대인관계조화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34].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눈치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조화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눈치 수준을 높여 대인관계조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효과 평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 눈치 파악,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대인관계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를 설명하는 변량은 55%였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상대방과 상황을 파악하는 눈치 파악 수준이 높을수록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조화가 증가한다. 이는 Kim[35]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높고 눈치 수준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대인관계조화 정도가 높다고 보고한 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향후 임상 현장에서 대인관계조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 눈치 수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눈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전략으로, 실제 임상 상황과 비슷한 모의 상황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실습 방법은, 안전한 환경에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간호대학생에게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조화의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24]. 또한 토의, 시범, 역할극 등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대인관계조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 뿐 아니라 상황과 상대를 파악할 수 있는 눈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조화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 및 대인관계조화 정도를 파악하고 대인관계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 및 대인관계조화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의사소통 능력, 눈치 파악,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킴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조화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의사소통 능력, 눈치, 대인관계조화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특성과 의사소통 능력, 눈치 외에 다른 변인을 찾아내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H. Kim & J. W. Kim. (2004).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separation,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and socia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2), 83-97.
- [2] D. D. Kim, G. W. Song & Y. G. Kim.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 370-371.
- [3] S. H. Kim & G. H. Park. (2008). The development of the interpersonal harmony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2), 375-389.
DOI : 10.15703/kjc.9.2.200806.375
- [4] S. H. Kim & G. H. Park. (2010). The development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1), 375-393.
DOI : 10.15703/kjc.11.1.201003.375
- [5] R. K. Thomas. (2006). *Health Communication*, New York.
- [6] M. H. Kim. (2008). A study on ego-identity,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and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Health Nursing, 17*(1), 55-64.
- [7] G. L. Kim, H. J. Lee, Y. S. Cho & M. H. Kim. (2013). The experience of turnover decision making in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4*(1), 23-33.
DOI : 10.22284/qr.2013.14.1.23
- [8] E. J. Jung, G. S. Chae, W. J. Noh, M. M. Park, E. Y. Cho & H. J. Kim. (2013). *A Survey of hospital nursing staff deployment status*. Annual Report of 2013. Seoul: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6-28.
- [9] E. J. Oh, S. Y. Lee & K. M. Sung. (2013). Interpersonal relations, hop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 adult attachment styles in early stag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4), 491-500.
DOI : 10.11111/jkana.2013.19.4.491
- [10] Y. R. Park & S. Yang. (2008). Nurse Manag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Nur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Empower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7(3), 342-352.
- [11] H. M. Yun & J. S. Kim. (2012).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New Nurses. *Global Health Nursing*, 2(2), 52-61.
- [12] E. J. Bong. (2013).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Curriculum were utilized Group Activ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0), 394-402.
DOI : 10.5392/JKCA.2013.13.10.394
- [13] Gudykunst, W. B., Matsumoto, Y., Ting-Toomey, S., Nishida, T., Kim, K., & Heyman, S. (1996). The influence of cultural individualism-collectivism, self-construals, and individual values on communication styles across culture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 510-543.
DOI : 10.1111/j.1468-2958.1996.tb00377.
- [14] J. H. Heo, W. J. Park & S. J. Kim. (2012). Conceptualization of Nunchi. *Institute of Human Sciences*, 33, 557-581.
- [15] M. J. Jin & M. H. Hyun. (2014). Affect and person-evaluation about the other's nunchi behavior: Success and intention of nunchi.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5), 463-482.
- [16] H. J. Park & H. J. An. (2019).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n Nunchi in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1), 48-57.
DOI : 10.5977/jkasne.2019.25.1.48
- [17] J. E. Yi & H. W. Kwak. (2016).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1), 527-537.
DOI : 10.14400/jdc.2016.14.11.527
- [18] H. W. Kwak & N. H. Kim. (2015). Effects of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Program o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3), 330-339.
DOI : 10.5977/jkasne.2015.21.3.330
- [19] M. K. Cho & S. H. Kim. (2013). The Development of the Interpersonal Harmony Scale for Private Class in Korean Militar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4), 2375-2393.
DOI :10.15703/kjc.14.4.201308.2375
- [20] H. S. Seo & M. K. Jang. (2016).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Patter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ldiers' Nun-chi and Interpersonal Harmony.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9(1), 141-161.
- [21] R. B. Rubin. (1990). Communication competence. In G. M. Phillips & J. T. Wood (Eds.), *Speech communication: Essays to communication. The 75th anniversary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94-129.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22] G.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08.
- [23] J. H. Heo & W. J. Park.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unchi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6), 3537-3555.
DOI : 10.15703/kjc.14.6.201312.3537
- [24] Y. K. Yang. (2018).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Skil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igu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5(1), 58-67.
DOI : 10.7739/jkafn.2018.25.1.58
- [25] S. J. Shin & M. S. Ju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Stress Coping,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7(5), 441-455.
- [26] J. H. Park & S. K. Chung. (2016).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Resilience on Nursing Performance in University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0), 236-244.
DOI : 10.5762/kais.2016.17.10.236
- [27] E. H. Kwon & S. B. Cho. (2018). The Effect of Nun-Chi on School's Mal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9(1), 327-342.
DOI : 10.15703/kjc.19.1.201802.327
- [28] J. K. Lee. (2015). *The Relationships among Clinical Compet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Skill & Nunchi in Nursing*

Student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29] H. Wee. (2011). Experienc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Psychiatric Clinical Settings; A Focus Group Stud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6(2), 105-117.
DOI : 10.15715/kjhcom.2011.6.2.105
- [30] H. Y. Kang & E. Y. Choi. (2015). Stress, Stress Coping Methods, and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Behavioral Styles in Freshm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3), 289-297.
DOI : 10.5977/jkasne.2015.21.3.289
- [31] H. S. KiM, W. J. Park & T. H. Ha. (2006).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29-237.
- [32] J. E. Yi & H. W. Kwak. (2017). Relation of DISC Behavioral Styles, Self 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among Nursing Students. *Korea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2(1), 31-40.
- [33] M. O. Chae. (2016).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95-103.
DOI : 10.5762/kais.2016.17.5.95
- [34] S. M. Myoung. (2016).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 Communication Skills and Work-related Stress in Physical Therapis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1(2), 123-129.
DOI : 10.9708/jksci.2016.21.2.123
- [35] Y. S. Kim. (2018). The effect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 on interpersonal rel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0), 773-782.
DOI : 10.21742/AJMAHS.2018.10.37

양 윤 서(Yoon-Suh Yang)

[정회원]



- 2013년 2월 :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9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한일장신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학, 시뮬레이션
- E-Mail : yang@hanil.ac.kr

홍 소 형(So-Hyoung Hong)

[정회원]



- 2015년 2월 : 우석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보완대체간호
- E-Mail : hsh-so@hanmail.net

류 정 림(Jeong-Lim Ryu)

[정회원]



- 2015년 2월 : 원광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2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간호, 보건교육
- E-Mail : ryujeong312@kcn.ac.kr